

## 단일치아 임플란트의 survival rate : 6 Years Retrospective Study

이종석, 신상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

장기간의 구강임플란트의 성공을 위하여 제안되어온 protocol들은 1979년 이래로 변화되어 왔다. 새로운 system이나 새로운 임상적 적용법을 평가할 때에는 지극히 제한된 성공의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, 일반적인 치료나 이미 잘 언급되어진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적당한 성공의 기준들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식립된 단일치아 임플란트의 survival rate를 조사하였다. 식립된 fixture는 10 - 18mm의 길이, 3.25 - 5mm 의 직경이었으며, Integral과 Bränemark system으로 식립한 fixture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. 환자의 연령군은 19-76세로 총 36명(39 fixtures)이었다. Follow up 기간은 4개월에서 6년 7개월의 범위였다.

Albrektsson과 Zarb등이 제안한 protocol을 좀 더 넓은 임상적 허용범위를 갖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고, 개개 임플란트의 동요도, 타진반응, 연조직 병변의 유무, 방사선적 검사, 불편감의 유무등을 조사하여 anacounted for, failure, survival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survival rate를 구하였다.